

# “5천년 역사의 문화적 저력을 실감”

## 제6회 북경국제도서박람회를 돌아보고

김경희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이번 북경 방문은 별다른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중국 여행의 문이 열린지가 오래 되었음에도 간다 간다하다가 언제쯤 이루어지겠지 정도로 자꾸만 늦추고 있던 참이었다. 21세기를 앞두고 세계 주요 국가들의 출판정책 내지는 출판계의 대응자료를 구체적으로 조사·수집할 필요가 있어서 대한출판문화협회 북경도서박람회 참가단(단장 나춘호 회장)에 끼어 가기로 했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고 북경도서전 개막 당일인 8월 30일에야 비행기를 탔다.

### 열기가 대단, 참가규모도 놀라워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목적이 목적인 만큼 뒤늦게나마 몇가지 쟁길 일이 있었다. 중국의 출판정책 당국자나 출판계 및 출판학계의 지도적 인물들을 직접 만나보려면 평시에 교환이 없던 터라 어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우선 범우사 윤형두 사장께 협의했더니, 한 분을 만나보라고 자세한 소개장을 써 주었다. 다음으로 문체부에 부탁했더니, 북경 주재 우리 대사관의 문화관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해주었다.

대사관 문화관이 소개한 통역이 비행장까지 마중와서 출판계 참관단 3진 일행 10여분과 함께 거의 오후 3시가 다 되어 전시장(국제전람중심)에 도착해 보니, 오전에 개막한 터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전시 공간은 1·2층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아래층은 외국부, 위층은 국내부였고, 위층은 다시 북경지역 출판사들의 부스와 30여개 성(省)·시(市) 출판사들의 부스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었다.

우선 생각했던 것보다 그 열기가 대단했고, 외국 출판사들의 참가 규모나 전시 내용물이 놀라운 것이었다. 물론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라는 것이 애매하기는 하다. 한번도 이전의 북경국제도서전에 참가한 적이 없고 또 중국의 출판상황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열린 두차례 서울도서전의 중국측 부스를 본 것과 2년 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중국측 부스를 본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의 전언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 이번 북경국제도서박람회는

우선 그 열기가 대단했고

외국 출판사들의 참가규모나

전시내용물도 놀라웠다.

출판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중국도서를

자국어로 출간하고 있어

중국의 문화적 저력을

실감케 했다.

중국과 대만의 합작투자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던진다.

그런데 외국 출판사들의 참가규모(30국 802개사, 참고로 94년의 5회때는 517개사였다고 한다)와 그 내용에서 우리 서울국제도서전과 비교되는 것이었다. 특히 외국 출판사들의 참가도서 내용이 중국의 문화를 소재로 한 출판물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역시 중국 역사 5천년의 문화적 저력을 새삼스럽게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귀국 후 출판협회 간부에게서 외국과의 관련 계약이 1천5백건이라고 들었다). 출판 선진국들이 다투어 중국에 관한 도서를 자국어로 출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우수한 생산기술과 평이한 서술로 자국의 독자들을 우선 사로잡고 나아가 12억의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그 열의를 보면서 우리의 출판 현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북경도서전에는 한국도 종합부스 외에 예림당과 진명문화사가 별도 부스로 참가했다(56건의 도서문의 및 서울도서전에 관련된 문의가 있었다고 함). 중국 국내출판사 코너인 2층에서 눈에 띈 첫번째 놀라운 곳은 과학출판사 코너에서였다. 타블로이드판 《長江三峡生態與環境地圖集》이 그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보고서를 호화판 책으로 간행한 것은 중국의 과학계와 출판계, 그리고 중국 정부의 자기 문화와 나라 사랑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국 출판계는 대만 출판계가 합작 투자를 상당



중국 국내 부스. 중국 5천년 역사의 문화적 저력을 실감케 했다.

히 진행하여 이미 그 성과들이 대륙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중국의 출판생산의 질이 급속도로 제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 개혁시대의 ‘황색출판’ 우려하기도

목적이 목적인지라 중국 출판정책 당국의 핵심 인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그 바쁜 가운데서도 유재기 문화관이 토요일 밤에 일부러 저녁을 내면서 자문에 응해주었고, 윤형두 사장의 소개장이 크게 빛을 발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사를 위해서는 조선족 학자인 통역 안의운 선생의 역할이 컸다. 중국출판과학연구소 판공실 부주임인 심국방(沈菊芳) 여사가 일요일 밤인데도 내 숙소에서 찾아와 소개장을 보더니 나의 부탁을 힘써 보겠다는 것이었다.

심여사의 주선으로 전시장에서 왕도(王濤)와 위왕산(魏王山) 두 분을 만날 수 있었고, 같이 점심을 들면서 두시간 가까이 공동 관심사인 출판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초면이라 약간 긴장한 듯했으나 이야기가 전개되자 이내 웃음이 오고 갔다. 특히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출판계가 해야 할 일들, 21세기 출판의 장래, 한·중 두나라 출판계의 현실 등에 이르자 얘기가 상당히 진지해졌다. 필자의 소박한 이론인 현대문화정삼각형론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소개했더니 경청하는 듯했다.

마침내 그들이 안고 있는 고민들도 서슴

지 않고 털어 놓았다. 현대 중국은 개혁·개방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황색출판’에 대하여 매우 걱정하고 있으며(이것은 중국의 체제적인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됐다), 이런 점에서 유교문화의 재평가를 언급하기도 했다. 더욱이 인상적인 말은 “이번 개혁·개방이 우리 중국이 응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앞으로 10여년의 정치적 안정이 문제”라는 실토였다.

그들은 한국출판연구소의 규모와 인원을 물었다. 나를 포함해서 5인, 정규인원은 4명이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상근인원만 60명이라 했다. 이를 들은 나는 스스로 초라해짐을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은 나의 방문 목적에 어느 정도 만족할지 모르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헤어질 땀 심여사를 통해 이미 절판된 자료 등을 포함하여 여러 종을 건네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을 약속했다.

다음날은 그곳 출판학계 원로인 대문보(戴文葆) 선생의 특별 초대로 심여사와 함께 융숭한 대접을 받기도 했다. 그이들에게 평소에 베풀 적이 없는 사람으로 극진한 환대에 몸둘 곳을 모르겠다고 했더니, 대선생이 말하기를 “우리 중국에는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라는 말이 있는데, 고 안춘근 씨와 윤형두 선생을 비롯한 한국의 출판관계 여러 친구들의 친구인 당신을 친구로 삼는다”고 했다.

귀국한 이후에도 그 한 마디는 나의 머리에 긴 울림으로 남아 있다. ❖